

리스본 공과대학 (IST) 교환학생 보고서

재료공학부 안희성

2022 년 2 학기 포르투갈 IST 파견

1. 교환학생 지원 동기

해외 교환학생에 도전하는 것은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키워왔던 로망이었던 만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인생 과제였습니다. 이미 교환학생을 다녀온 다른 친구들을 지켜보며, 교환학생 과정에서 겪는 한국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전세계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들이 부러운 한편, 타지 생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민만 거듭하던 와중에, 같은 학과 친구로부터 함께 교환학생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받고 결심을 내려 공대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많은 국가들 중 포르투갈을 선택하게 된 경위는, 우선 교환학생 지원의 목적 중 큰 부분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많이 없을 유럽 여행을 실행 하자는 것에 있었고, 유럽 국가 중 포르투갈의 물가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 치안이 좋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스본의 IST 가 유럽 내 공과대학 순위가 높은 점, 저의 전공학부가 있는 것 등이 리스본 선택에 기여했습니다.

2. 출국 전 준비

1) IST 지원

공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한 다음, 가을학기 기준 6 월 중에 IST로부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Learning Agreement, 그리고 영문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기술적 문제로 IST 지원기간이 늦춰졌다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른 년도에는 기간이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으니 학교 메일을 자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Fenix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 때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을 참고하여 마감일자에 늦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Learning Agreement에는 지도교수님 등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T의 경우 학부가 3학년, 석사 과정이 2년이며 석사 이후의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므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3학년이었던 저는 석사 과정 1학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 집 구하기

당시 제가 찾아본 교환학생 후기 중에는 교환학생 국가에 입국한 후에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다는 후기도 많았지만, 학기 초에는 집을 구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교환학생 시작 두세달 전에 미리 집을 구한 후 출국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거주지 증명이 필요한 점, 그리고 학기 시작 전후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라는 리스본 친구들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살 곳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숙사 정원이 매우

적고 선착순이며, 기숙사 메일이 오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좋은 집들이 빠르게 마감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2022 년 기숙사 정원은 4 명이었으며 선착순 메일은 학기 시작 한달 반 전쯤 왔습니다.

저는 IST 에서 추천해준 Uniplace 라는 사이트를 통해 살 집을 구했습니다. 선택지가 많고 집주인의 신원이 보장되는 등의 편리한 점이 있지만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 근처보다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집을 구했으며, 이는 월세가 도심보다 싸고 조용한 동네에 생활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과 학교뿐 아니라 도심의 식당이나 술집과 집까지 거리가 꽤 멀어 이동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 비자 발급

우선 비자 발급은 최소 한달에서 두달까지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출국 전 시간을 넉넉히 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서류는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사관 방문 날짜까지 서류를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우선 방문 후 부족한 서류를 추후에 이메일로 첨부할 수 있으니 우선 방문 날짜를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수업

1) 수강 신청

2022 년의 경우 22/23 1 학기 수업 내에서도 Period 1 과 2 로 나뉘어 Period 1 은 9 월 둘째 주부터 11 월 첫째 주까지, Period 2 는 11 월 마지막 주부터 1 월 초까지 수업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교환학생 계획에 따라 Period 1 또는 2 에 수업을 몰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Period 1 에 속한 Metal cutting and Metal forming Technologies 와 Technology of Polymeric Materials 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는 출국 전 Learning Agreements 에 미리 작성하였으며, 학기 시작 이후 별도의 수강신청(분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기 초반까지 수업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업은 이론 수업과 실험 수업으로 나뉘었으며, 실험 수업에서는 주로 조별 과제를 위한 실험 등을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평가 방식

제가 수강하였던 수업은 모두 조별 프로젝트가 있어 조별로 발표 및 레포트 제출 등을 했고, 수업 기간 중에 MAP 이라는 쪽지 시험의 형태로 성적을 평가했습니다. 이 때 모든 수업은 Exam 이라는 기말 시험과 같은 것이 있으나, 대부분의 수업이 발표와 레포트, 그리고 MAP 으로 100 퍼센트의 평가를 채우기 때문에 Exam 은 성적을 향상하고자 하는 학생들 외에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나 시험 등 모든 평가 대상은 최소한의 Pass 점수가 있었는데, 이를 넘지 못할 경우 기말 시험 또는 포르투갈의 1 학기 기준 2 월에 치는 또다른 Exam 등으로 만회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쉽고, Pass 기준 점수가 전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말 시험 등을 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의 전반적인 난이도 역시 석사 1학년의 경우 한국의 학부 2-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감되었습니다.

4. 생활

1) 다양한 학생들과의 교류

리스본 공과대학에 교환학생을 온 사람들 중 아시아인은 저와 친구, 그리고 일본인 1명이 전부였고, 이 외에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학생들과 다른 유럽 출신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브라질 학생들보다 유럽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으며, 전부 영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 교환학생들을 모아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때 다양한 곳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으므로 학기 시작 전 오티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2) 물가

리스본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듯이 리스본의 물가는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슈퍼마켓의 식재료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집에서 요리해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유럽의 특성상 외식 물가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교환학생 후반에는 현지 배달어플인 Glovo 등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3) Erasmus

Erasmus 는 유럽 내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인데, 유럽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이라면 Erasm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국제학생증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어 유럽 전역의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특정 항공사를 사용할 때 4번의 할인과 무료 수하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Erasmus 에서 개최하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Vodafone 의 자회사인 Yorn 에서 2개월간 무료로 유심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날씨와 자연

많은 유럽 학생들이 리스본으로 학생교환을 오게 된 이유로 꼽듯이, 리스본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맑습니다. 9-10월까지도 반팔 반바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며,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서핑을 즐기기 위해 리스본을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해변이 많고, 리스본에서 가까울수록 파도가 낮고 멀어질수록 파도가 높아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바닷가에서 배구를 하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 바다를 만끽하기에 좋습니다. 11월 이후에도 외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비가 자주 왔는데, 리스본 친구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는 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5) 포르투갈 사람들

유럽에 전반적으로 통일된 것이기는 하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은 특히 친절합니다. 버스를 탑승할 경우 먼저 와 기다린 사람에게 먼저 탑승을 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짐을 들고 킁킁거리거나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 망설임없이 도와주고, 대중교통에서 조금이라도 부딪히거나 지나가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5. 소감

한 학기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색다른 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공대 국제협력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세상에서의 적응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목격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힘과 동시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 후기를 읽으시는 다른 공대 학생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